

#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적 의미소통과 <모죽지랑가>

이 승 남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 I. 서 론
- II.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구성과  
서사의 초점
- III.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적 의미  
소통
- IV.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와 서  
사적 의미소통
- V. 결 론

## &lt;논문 요약&gt;

본고는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역사적 배경적 상황보다 서사의 문면에 반영된 찬자 일연의 서사적 의도에 주목하여, 각 부분 서사들을 관류하는 하나의 일관된 의미소통의 맥락을 짚어냄으로써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 구조와 양상을 살피는 동시에, 이러한 의미소통의 맥락 속에서 향가 <모죽지랑가>가 지향하는 시적 정서 및 서사적 전개상의 의미를 살피고자 했다. 효소왕대 죽지랑의 서사적 전개는 전체 서사가 죽지랑 혹은 화랑 세력의 흥성이나 쇠락의 국면보다 죽지랑의 개인적인 풍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득오의 휴가를 청하러 가는 죽지랑과 그 일행의 태도, 사리 간진과 진질 사지의 행동, 조정 화주와 대왕의 조치 등은 오로지 죽지랑이라는 한 인간의 인품이나 풍모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죽지랑이 익선에게 겪은 일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죽지랑의 행동이나 태도를,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그의 문도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러한 점을 익선의 무례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태도와 대비시켜 죽지랑의 重士風味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한 험한 고개를 넘는 사람들을 위해 그 길을 평평하게 닦고 있던 거사의 행동은 곧 이 거사가 죽어 환생한 죽지랑의 아름다운 인간적 풍모를 암시하고 있다. 결국 이 서사는 죽지랑이 이러한 인품이 바탕이 되어 자라서 삼국을 통일하고 4대에 걸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전체 서사는 찬자의 서사적 의도 하에 죽지랑의 개인적인 풍모의 아름다움을 핵심으로 그 의미소통의 맥락이 형성되고 있으며, <모죽지랑가>에서 표출되고 있는 득오의 죽지랑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의 정서는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제시된 죽지랑이 지닌 인간적인 풍모를 보다 강조하여 기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제어: 효소왕대 죽지랑조, <모죽지랑가>, 삼국유사, 향가, 서사구조, 서사적 의미소통, 서사적 의도, 重士風味, 시적 정서.

## I. 서론

三國遺事 紀異篇 孝昭王代 竹旨郎條는 竹旨郎의 문도인 得鳥와 益宣의 일을 중심으로 한 죽지랑의 이야기, 죽지랑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생애와 업적에 관한 서술 그리고 향가 <慕竹旨郎歌>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모죽지랑가>의 향찰 해독 및 해석, 형식, 창작시기, 사건 발생의 시기와 의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서사의 주제가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를 살았던 죽지랑의 모습을 통하여 화랑의 盛衰나 榮枯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조명되기도 했다.

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모죽지랑가>의 창작시기와 관련된 논의<sup>1)</sup>에서는 크게 보아 죽지랑의 생존시 혹은 사후라는 견해가 서로 대

- 
- 1)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나 이와 관련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많은 논의들에서 다루어졌다.

홍기문, 「향가의 특수한 형식」, 『향가해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78~79쪽 ; 신수식, 「모죽지랑가의 창작연대 연구」,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961, 130~134쪽 ; 김동욱, 「신라가요의 불교학적 고찰」,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21쪽 ;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68~69쪽 ; 김선기, 「다기마로노래」, 『현대문학』 146, 현대문학사, 1967.2, 277~297쪽 ; 정연찬, 「향가해독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105쪽 ; 서재극, 「모죽지랑가 연구」, 『신라시대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1974, 49~81쪽 ; 김승찬, 「모죽지랑가 신고찰」, 『국어국문학』 13·14, 부산대 국문과, 1977, 73~86쪽 ; 김종우, 「모죽지랑가의 성격고」, 『한국문학논총』 1, 한국문학회, 1978, 14~17쪽 ; 윤영옥, 「모죽지랑가 재고」, 『영남어문학』 6, 1979, 69~85쪽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53~67쪽 ;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 출판국, 1980, 97쪽, 주) 209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119~139쪽 ; 최철, 『향가의 본질과 서사적 상상력』, 새문사, 1983, 178~179쪽 ; 최성호, 『신라가요연구』, 문현각, 1984, 64~70쪽 ; 김동욱, 「효소왕대 죽지랑 이야기와 모죽지랑가 이해의 두 바탕」, 『성대문학』 25, 성균관대 국문과, 1987, 44~46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제2판, 지식산업사, 1989, 146~147쪽 ; 조지훈, 「신라가요연구론고」, 『민족문화연구』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164~165쪽 ; 신동훈, 「모죽지랑가와 죽지랑 이야기의 재해석」, 『관악어문론집』 15,

립되며, 생존시라는 견해는 다시 젊은 시절과 노경이라는 견해로 나뉘는데 보다 구체적인 시기에 있어서는 논자들마다 약간씩의 편차를 보인다.<sup>2)</sup> 이러한 견해들은 관련 서사의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모죽지랑가>의 창작시기를 추적해 내거나, 반대로 <모죽지랑가>의 해석을 토대로 사건 발생 시기 및 그 배경적 의미를 살피고 있다.

가요의 창작 시점이나 사건 배경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 <모죽지랑가>를 소개하는 문두에 등장하는 ‘初’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석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에는 ‘初’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온다. 그 중 죽지랑의 출생 관련 이야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初’는, 시간상 해당 서사의 앞 부분에 위치한 서사의 시점으로부터 훨씬 이전인 죽지랑의 출생 시점으로 그 시기를 소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죽지랑 출생 관련 서사의 다음에 이어지는, <모죽지랑가>를 제시하고 있는 구절의 문두에 놓여 있다. 논의가 집중된 것은 후자의 경우로 <모죽지랑가>의 창작시기를 말해주는 ‘初’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은 <모죽지랑가>의 창작과 득오가 익선에게 차출당했던 사건 사이의 관련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그 시점이 역사적 시기로 보아 구체적으로 언제이며, 가요의 창작과 득오 관련 서사의 시점이 동일 시점인가의 여부 등에 관심을 두는 한편, 득오 관련 서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화랑으로서의 죽지랑의 처지나 위세가 익선과 모량리 사람에 대한 조정의 花主나 大王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 의미하는 바와 괴리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 중에는 죽

---

서울대 국문과, 1990, 173~195쪽 ; 양희철, 「모죽지랑가의 창작시기 일별」,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227~248쪽 ; 이도흠, 「모죽지랑가의 창작배경과 수용의미」,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117~167쪽 ;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0, 서울대 국문과, 2005, 137쪽.

2) 가요 창작의 구체적 시기 대한 견해를 소개는 김동욱, 「모죽지랑가」, 『향가문학연구』, 화경고전문학연구회편, 1993, 362~363쪽 참조.

지랑과 익선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죽지랑이 득오의 휴가를 요청한 것을 익선 아간이 들어주지 않고 무례하게 대한 것을 죽지랑의 위상이 추락한 상황으로 보고, 이러한 점이 <모죽지랑가>에서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득오의 정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 내기도 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찬자 일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사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서사적 의도는 한 편의 서사 전체 구성이나 전개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자리하고 있다. ‘효소왕대 죽지랑’이라는 條名이 말해주듯이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찬자 일연의 서사적 의도로 보아, 이 이야기는 서사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적 상황보다 서사의 문면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찬자인 일연의 의도에 주목하여, 전체 서사가 하나의 일관된 의미소통의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서사적 의미소통의 구체적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곧, 화랑 죽지랑, 그의 낭도인 득오, 아간 익선 사이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죽지랑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죽지랑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이야기, 득오가 지은 <모죽지랑가> 등으로 구성된 효소왕대 죽지랑조 전체 서사는, 이들 이야기들을 관류하고 있는 찬자 일연의 서사적 의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로써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죽지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일관된 서사적 의미소통 맥락 속에 원활하게 포섭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몇 개로 분단되는 각 부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의 양상을 살피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가인 <모죽지랑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 II.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구성과 서사의 초점

장황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전문을 그대로 옮겨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제 32대 효소왕 때에 죽만량의 낭도에 득오(혹은 곡이라고도 한다) 급간이 있었는데 화랑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날마다 나와 정진하고 있었는데, 한 열흘 동안 보이지 않자 죽만량이 그 어머니를 불러 ‘너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어머니가 ‘당전으로 있는 모량부의 익선 아간이 부산성 창직으로 차출시켜 급히 달려가느라 미처 낭에게 하직 인사를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낭은, ‘너의 아들이 만일 사사로운 일로 거기를 갔다면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공적인 일로 갔으니 마땅히 찾아가서 대접해야겠다’ 하고 딱 한 합과 술 한 동이를 가지고 좌인(방언으로는 攄叱知이니 중을 말한다)을 데리고 갔다. 낭도 1백 37명이 모두 의례를 갖추어 따라갔다.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득오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지금 익선의 밭에서 예에 따라 부역하고 있다’고 했다. 낭이 밭으로 찾아가서 술과 떡을 대접하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여 같이 돌아오려 하였으나 익선이 굳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리 간진이 추화군 조세 30석을 거두어서 성 안으로 수송하다가 죽지량이 선비를 중히 여기는 정을 아름답게 여기고 변통성이 없는 익선을 야비하게 생각하여 거둔 벼 30석을 주며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진절 사지가 타던 말과 안장을 주니 허락하였다.

<1-2> 조정에서 화주가 그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익선을 잡아다가 그 추한 짓을 씻어주려 하였으나 익선이 도망하여 숨었다. 그 장자를 대신 잡아갔다. 때는 동짓달 극히 추운 날 성 안의 못에 목욕시켰더니 얼어 죽었다. 대왕이 듣고 모량리 사람으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 버리고 다시는 공적 기관에 들이지 않았고, 승복도 입지 못하게 하였다. 만일 승려가 된 자가 있어도 큰 절에는 들지 못하게 하였다. 또 간진의 자손을 평정호손으로 삼아 특별히 표창하게 했다. 원측법사는 해동의 큰 스님이지만 모량리 사람이어서 승직을 주지 않았다.

<2> 처음에 술종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서 장차 임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마침 삼한에 병란이 있어 기병 3천으로 호송하게 되었다. 일행이 죽지령에 이르니 한 거사가 고개의 길을 닦고 있었다. 공이 보고 참미하니 거사도 역시 공의 혁혁함을 좋게 여겨 서로 마음이 감동되었다. 공이 부임지에 간 지 한 달이 되어 꿈에 거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으므로 더욱 놀랍고 이상히 여겨 이튿날 사람을 시켜 거사의 안부를 물었더니 ‘거사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돌아와 아뢰니 꿈꾼 날짜 같았다. 공이 생각하되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군사들을 보내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장사하게 하고 무덤 앞에 돌미륵 하나를 세웠다. 그 아내가 꿈꾸

던 날로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죽지라 하였다.

<3> 자라서 벼슬에 나아가 유신공과 함께 부원수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고 진덕, 태종, 문무, 신문, 신문의 4대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4> 처음에 득오곡이 죽지랑을 사모하여 노래를 지었다. <모죽지랑가><sup>3)</sup>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전체 서사는 크게 보아 위와 같이 네 부분으로 분단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과 <1-2>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서사적 진술로 득오의 부역을 둘러싼 익선과 죽지랑 사이의 일과 함께 죽지랑에 대한 익선의 무례한 처신을 이야기한 다음 익선의 그러한 처신에 대한 조정의 화주와 대왕의 응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2>에서는 술종공이 삭주 도독사로 부임시 죽지랑에서 만난 거사와의 일화와 함께 죽지랑의 출생에 관해 이야기를 역시 서사적 진술로 제시한 다음, <3>에서 죽지랑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적 진술로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4>에는 득오가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지은 향가인 <모죽지랑가>를 소개하며 첨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1-1>·<1-2>의 사건과 <4>의 <모죽지랑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죽지랑의 화랑으로서의 처지나 위세를 초점으로 전개되었으며, <2>와 <3> 부분의 의미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와 <모죽지랑가>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이야기의 문면에 드러난 서사적 의미 보다 그 역사적 배경적 상황에 지나치게 경도된 인상이 짙다. 곧, 부분 서사 <1>에 제시된 사건과 <모죽지랑가>의 의미에 대한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이나 <모죽지랑가> 창작의 의미를 살피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의 서사적 구조나 의미보다 죽지랑 혹은 화랑세력의 성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시기나 역사적 배경적

3)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孝昭王代 竹旨郎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득오가 익선에게 차출되어 간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서사 <1>의 의미를 그 외의 나머지 부분 서사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잣대로 삼아 전체 서사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부분 서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생성하고 있는 전체 서사의 의미 구조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주로 서사의 배경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서사의 문면을 통해 제시된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전체 서사의 의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적 상황보다 서사의 문면 자체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를 살펴야 하며, 개별적인 하나의 부분 서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른 서사들을 포섭하는 식이 아니라, 전체 서사의 의미 소통 구조 속에서 각 부분 서사들 사이에 수수되고 있는 의미소통의 맥락을 짚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의 배경적 상황을 살펴 그것이 지닌 의미를 짐작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서사적 의도로 보아 죽지랑이라는 화랑 혹은 화랑세력의 성쇠나 영고라는 역사적 배경적 정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sup>4)</sup>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 시기를 서사의 문면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언급하거나 적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암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는 ‘初’라는 글자가 단순히 시기를 소급하는 것 외에 그 시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득오 관련 이야기에서도 서사자의 관심은 그 배경적 시기가 아닌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행위나 태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겠지만 전체 서사의 전개 과정상 이 이야기를 전하는 찬자인 일연의 서사적 의도는 죽지랑이라는 한

4)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主旨를 한 花郎의 盛과 衰, 榮과 枯의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소준, 앞의 책, 121쪽.



인물의 인품이나 품모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이야기는 논의의 시선을 이러한 국면에 집중할 때 전체 서사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향가인 <모죽지랑가>도 이러한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 구조 속에서 창작시기에 대한 검증이나 문학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Ⅲ.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적 의미소통

<1-1>은 득오의 부역을 중심으로 익선과 죽지랑 사이에 일어난 일과 함께 죽지랑을 대하는 익선의 무례함을, <2-2>는 이러한 익선의 태도에 대한 조정의 화주와 대왕의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서사자의 시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 역시 술종공과 거사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죽지랑이라는 인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3>도 죽지랑이라는 인물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서술이며 <4>의 <모죽지랑가>는 작자가 득오이긴 하나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죽지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이와 같은 서사의 전개 과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찬자인 일연의 서사적 의도 하에 죽지랑의 인품이나 품모에 집중되어 있다. 각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1>은 익선에게 불려간 득오의 휴가를 청하기 위해 익선을 찾아간 죽지랑이 익선에게 모욕적인 대접을 받는 사건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의 문면은 죽지랑이 익선에게서 받은 모욕적인 사건 자체에 이야기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면에는 죽지랑이 익선을 비난하거나 위세로서 제압하려는 등과 같은 태도는 물론, 반대로 익선의 무례한 태도를 제압하지 못하는 죽지랑의 쇠락한 위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의 문면은 오로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자

신의 문도를 지극히 아끼는 죽지랑의 ‘重士風味’를 드러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sup>5)</sup>

죽지랑은 득오가 익선에게 차출당한 것에 대하여, ‘사사로운 일로 거기를 갔다면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공적인 일로 갔으니 찾아가서 대접해야겠다’고 했다. 곧, 득오가 익선에게 불러 간 것은 私事가 아닌 公事로 인한 것이었고 죽지랑 역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sup>6)</sup> 득오의 차출이 공적인 일이었기에 익선에게 득오의 휴가를 정식으로 청한 것이다.

죽지랑이 득오를 찾아가는 문면에도 137인의 낭도들이 ‘예를 갖추어 따랐다(具儀侍從)’는 점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죽지랑이 득오를 찾아가는 정황이 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죽지랑이 득오의 청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득오를 公事로서 차출한 익선에게 일상적인 격식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37인이라는 낭도들의 존재를 두고 죽지랑이 화랑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익선을 강제하거나 위협하여 득오를 데려오려 했다거나, 이러한 낭도의 숫자가 한 화랑이 거느리는 숫자로서는 극히 적다는 점을 들어 화랑으로서의 죽지랑의 위세가 쇠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곧, 137인이라는 낭도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이 문면은 어디까지나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문도인 득오의 청가를 위해 애쓰는 죽지랑의 인물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만약 죽지랑이 자신을 따라간 137인의 낭도들에게 명하여 강제로 익선을 제압하고 득오를 데려오려 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137인이라는 낭도의 숫자가 익선을 제압하기에는 부족한 세력이었다는 식의 서사적 전개를 가정한다면 죽지랑의 ‘重士風味’는 빛을 잃게 된다.

죽지랑 일행이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득오실이 어디 있느냐고

5) 조명의 말미에 덧붙여 제시된 ‘亦名智官’의 ‘智官’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죽지랑의 인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도흙, 앞의 글, 146쪽.

물었을 때, 익선의 발에서 ‘예에 따라(隨例)’ 부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적인 일로 차출되어 간 득오는 익선의 발에서 관례에 따라 부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익선의 발에서 부역을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의 문면에는 이에 대한 죽지랑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태도 및 죽지랑의 위세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다. 공적인 일로 차출되어 간 득오가 익선의 발에서 부역을 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익선이 사사로이 득오를 부렸다는 식의 해석까지는 가능하지만, 익선이 득오를 부역시킨 것, 죽지랑의 문도를 사사로이 부린 것으로 인해 죽지랑의 위세가 쇠락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sup>7)</sup>

죽지랑의 득오에 대한 請暇를 익선이 허락하지 않자, 使吏 侃珍이 죽지랑의 ‘重土風味’를 아름답게 여기고 ‘暗塞不通’한 익선을 야비하게 생각하여 거두어 가던 벼 30석을 주며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익선의 태도는 단지 뇌물을 받고서 득오의 청가를 허락했다는 식으로 간단히 제시된 것이 아니라 사리 간진이 바친 벼 30석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청을 거절했다가 진절 사지의 기마안구를 받고서야 허락했다는 식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문면 그대로 사리 간진의 생각을 빌어 죽지랑의 청가에 대해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았음(固禁不許)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sup>8)</sup> 따라서 이 문면을 두고 익선이 죽지랑을 무시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죽지랑은 익선이 득오를 부산성 창직으로 차출한 것을 공적인 일로 알고 있었음이 문면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득오가

7)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와 동일한 시기의 일로 전하고 있는 <1-2>에서의 조정의 화주와 대왕의 조치들이 의미하는 바와 모순된다. <1-2>는 죽지랑의 인격에 대한 국가의 존경감, 국가적 예우의 의미로 해석된다. 홍기삼, 『항가 설화문학』, 민음사, 1997, 102~104쪽 참조.

8) “익선은 暗塞不通했다는 것인데, 그는 原則論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官職을 最大限度로 活用하여 私利를 채우는 人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웅재, 『항가에 나타난 서민의식』, 백문사, 1990, 188쪽.

익선의 밑에서 부역을 하게 된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富山城 문지기의 말을 들은 죽지랑의 반응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고,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죽지랑의 위상이나 위세를 관련지어 언급한 내용도 서사의 문면에 제시되지 않았다. 서사의 문면이 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익선의 태도로서 그것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지랑에게 변통성 없이 결례를 한 지방관리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사리 간진이 이러한 익선의 태도를 보고 죽지랑을 위해 대신 뇌물을 준 것이, 죽지랑이 자신의 문도를 아끼는 태도와 인품에 感服했거니<sup>9)</sup> 이미 그러한 죽지랑의 인물됨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의 서사적 초점은 자신의 문도를 중히 여기는 죽지랑의 아름다운 풍모 곧, ‘重士風味’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있다. 문면에 제시된 바 그대로 사리 간진이 거두어 가지고 가던 벼 삼십 석을 익선에 주며 도움을 청한 것은 익선의 태도를 비루하게 여긴 나머지 그러한 익선의 태도에 대한 죽지랑의 ‘重士之風’를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이며, 珍節 숨지가 익선에게 ‘騎馬鞍具’를 주었다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결국 익선의 ‘暗塞不通’하고 탐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이 이야기는 이러한 태도를 지닌 익선에 비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부하를 아끼는 ‘중사풍미’를 지닌 죽지랑과 매우 대조적으로 제시되어<sup>10)</sup> 죽지랑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면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서사적

9) “죽지랑의 태도가 과거의 巨物政客이었다는 권위를 가지고 請暇해 가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行動은 美化되어 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使吏가 흔쾌히 能節의 租 30石을 주면서까지 助請했고, 그래도 益善이 猶不許하므로 珍節사지의 말 안장까지 주어서 許諾을 얻어냈던 것이다.” 이웅재, 위의 책, 211쪽.

10) “重士하는 인간적인 죽지와 암색불통하고 탐욕적이요 비인간적인 익선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윤영옥, 앞의 글, 76쪽. “죽지랑이나 득오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인물들이 나타나 죽지의 인품에 감동되어 조세를 주고 자기의 말안장도 주는 이야기는 죽지의 인품과 익선의 성격을 대조시킬 뿐 아니라……”, 홍기삼, 앞의 책, 101쪽.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1-2>에서 조정의 화주는 익선을 잡아다가 ‘추한 짓’을 씻어주려 했으나 익선이 도망했으므로 그의 아들을 잡아다가 얼어 죽게 하고, 대왕은 모랑리 사람들에게 익선과 같은 지역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이 역시 앞의 <1-1>과 동일한 의미맥락 속에 있다. <1-2> 역시 죽지랑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일화로서, 그 아름다운 ‘중사품미’가 당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회자되었고, 조정의 화주나 대왕 역시 이러한 점을 익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죽지랑을 무례하게 대한 익선 및 익선과 같은 지역인 모랑리 사람들에게 취한 조정의 화주나 대왕의 이와 같은 처분들은, 죽지랑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면모가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서사적 의도를 지니는 것이다.

익선의 태도와 행위로 인해 조정의 화주와 대왕이 내린 이와 같은 처분들로 미루어 당시 죽지랑 혹은 화랑 세력이 지녔던 위상을 암시받을 수는 있다.<sup>11)</sup> 하지만 이러한 암시는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의 배경적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 배경적 의미가 곧 이야기가 지닌 서사적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조정의 화주나 대왕의 조치들에 대해 죽지랑이 지닌 아름다운 품모를 무례하게 짓밟은 데 대한 강한 응징 이상으로 보는 것은 서사적 의미소통 맥락에서 벗어나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부분 서사 <1>에서 제시된 죽지랑의 아름다운 품모에 관한 이야기는 <2>를 통해서도 그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2>는 죽지랑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술종공이 죽지랑을 지날 때 한 居士를 보고 탄미한 것(公見之歎美)은 그 거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홀로 험한 고개의 길을 평평하게 닦고 있었기 때문이다.

11) <1>의 서사를 모두 죽지랑의 ‘衰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1-1>의 죽지랑이 익선에게 굴욕을 당한 점을 죽지랑이나 화랑세력의 쇠락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1-2>의 조정의 화주와 왕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죽지랑이나 화랑세력의 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풍모에 감탄한 것이다. 술종공이 거사의 무덤 앞에 돌미륵을 세웠다는 문면은 서사 전개상 미래에 증생을 구제할 미륵불과 같은 존재인 죽지랑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거사의 아름다운 풍모를 기림으로써 이를 이어받은 죽지랑을 간접적으로 예찬하고자 하는 서사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sup>12)</sup> 술종공이 꿈에 거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으며, 꿈 끝날 이후 태기가 있어서 죽지랑이 태어났으므로 죽지랑은 전생에 고개의 길을 닦고 있었던 거사였다. 이러한 점은 죽지랑이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평평하게 닦은 이 거사의 아름다운 풍모-술종공이 탄미했던-를 그대로 지니고 태어났음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 <2>에서의 이러한 서사적 전개도 죽지랑의 아름다움 풍모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앞의 <1>과 동일한 의미소통의 맥락 속에 자리하게 된다.

<3>에는 죽지랑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이 제시되어 있다. ‘자라서 벼슬에 나아가 유신공과 함께 부원수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고 진덕, 태종, 문무, 신문 의 4대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라는 설명적 진술 역시 앞서 살핀 <1>, <2>에서의 서사적 의미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곧, <3>은 앞에서 전개된 <1>과 <2>에 이어 죽지랑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1>, <2>의 서사적 진술이 <3>에서 죽지랑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설명적 진술로 수렴되어 제시된 것이다. 전체 서사의 전개과정으로 볼 때, 죽지랑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에 대한 이 설명적 진술은 지금까지 서사적 진술로 전개된

12) 미륵불의 존재는 죽지랑의 아름다운 풍모를 중심으로 그 의미소통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전체 서사 전개 과정상 특정 의미를 보충하는 요소일 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불교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도 記述物의 文脈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노래는 <모죽지랑가>의 記述物이 있다. …… 居士를 장사지내고 石彌勒을 세웠다는 것은 비록 빠졌다고 해도 文脈上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다.”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349쪽.

이야기에 대한 찬자인 일연의 서사적 의도를 결론적으로 암시하는 부분이다. 삼국유사 이야기에서 흔히 보이는 이러한 설명적 진술은 대개 앞서 제시한 전체 서사에 대한 결론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3> 역시 이 조의 전체 서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찬자인 일연의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대한 최종적인 총평이다.

이 설명적 진술은 앞서 제시된 득오와 익선의 일과 죽지랑의 출생담이 의도하는 죽지랑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이야기에 뒤이어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죽지랑이 그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자신의 문도를 아끼는 중사지품을 지닌 죽지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개길을 평평하게 닦은 거사의 아름다운 풍모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성장해서도 부원수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고 4대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죽지랑의 행적은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眞德王條, 太宗王條, 文武王條, 列傳의 金庾信條 등 여러 군데에 제시되어 있는데, 찬자는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조를 통해, 삼국사기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죽지랑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에 가려져 있는 죽지랑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sup>13)</sup> <3>의 이 설명적 진술을 통해 죽지랑이라는 인물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을 드러내어 그 역사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음은, 이러한 서사적 의도가 <1>과 <2>에 제시한 죽지랑의 개인적인 인품이나 풍모를 더욱 강조하며 드러내려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며, 이로써 전체 서사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 소통의 맥락 속에 보다

13) <3>의 이러한 서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도 앞에서 살핀 <1-1>의 서사가 죽지랑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겪은 모욕이나 고난이라는 점 혹은, 화랑 세력의 약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식의 오해는 불식될 수 있다. 만약 <1-1>의 서사적 초점을 그렇게 인식할 경우, <3>이 죽지랑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이 두 부분은 서로 상반되어 전체 서사의 일관된 의미소통의 맥락이 무너지게 된다.

뚜렷하게 포섭될 수 있다.

#### IV. <모죽지랑가>의 창작 시기와 서사적 의미소통

죽지랑의 출생담인 <3>의 文頭에 놓인 ‘初’는 해당 서사의 문면에 그 시기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곧, 서사의 내용에서 제시된 대로 이 시기는 죽지랑이 태어나기 전 술종공이 삭주도독사로 부임하던 시기가 된다. 그런데, 향가 <모죽지랑가>의 노래말을 첨부하고 있는 <4>에 제시된 “初得烏谷 慕郎而作歌曰”이라는 문맥 중의 가요의 창작 시기를 가리키는 ‘初’는 서사적 전개상 바로 앞 <3>의 이전 시기가 됨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지는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이 ‘初’가 의미하는 시기는, 일단 앞에 위치한 부분 서사들 중 어느 하나보다 더 앞선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앞부분 서사들이 죽지랑의 생존시의 일들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담은 이 가요의 창작 시기는 죽지랑의 사후가 되기는 어렵다.<sup>14)</sup> 그 시기를 서사적 전개 과정을 감안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1-1>보다 앞선 시기 곧, 득오와 익선의 사건 이전 시기와 둘째, 이 사건 중의 시기 곧, 득오가 익선의 발에 부역을 하던 시기, 그리고 <3> 죽지랑이 삼한을 통일하고 4대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기 이전 시기 등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4) “앞의 것은 득오곡을 위한 죽지랑의 請暇 기록이 있는 다음에 죽지랑의 태어남을 이야기했으니까 마땅히 ‘초’로 해야 했고, 뒤의 것은 죽지랑의 태어남과 그의 在世時의 이력에 관해서 죄다 말했으즉 죽지랑의 생존시 득오곡의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모래를 지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초’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터이다. 따라서 죽지랑의 사후의 추모한 노래라고 보아야 할 문맥상의 의문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서재극, 앞의 글, 50쪽.



그런데, ‘初’라는 글자는 단지 그 시간상의 소급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서사적 전개에 있어서 해당 서사를 소급하여 그 바로 앞 서사보다 이전에 제시된 서사를 가리키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sup>15)</sup> 시기적으로 보아 이 ‘初’는 <2>가 바로 앞 서사로서 죽지랑의 출생담이므로 당연히 <2>보다는 앞선 시기를 가리키며, <3>은 설명적 진술로 전체 서사의 결론에 해당하는 까닭에 시기적으로 관련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4>에서 득오라는 인물이 <모죽지랑가>를 창작했음을 언급한 문맥의 ‘初’는 서사적 전개상 <1>에서 제시되고 있는 득오와 익선의 사건과 관련된 시기나 그 이전의 시기로 보는 견해가 타당성을 지닌다.

앞서 살폈듯이 효소왕대 죽지랑조는 죽지랑이라는 인물이 지닌 아름다운 풍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찬자의 서사적 의도 속에서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의 맥락이 형성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득오가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모죽지랑가>를 소개하고 있는 문맥 속에 있는 이 ‘初’가 가리키는 창작 시기는, 득오가 등장하고 죽지랑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풍모를 보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1>의 서사적 정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가요는 득오가 익선에게 차출되어 갔을 때 죽지랑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지은 것으로, 자신이 그 당시까지 기억하고 있던 죽지랑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15) “노래를 끝부분에 위치시키는 것은 삼국유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술방식인 바, 노래를 끝에 적으면서도 그것이 두 이야기 중의 앞의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初’를 썼을 가능성이 큰 것” 신동훈, 앞의 글, 185쪽.

16) 이 가요에 대한 기존 해석으로는, ‘가사에 투영된 郎의 초췌한 모습이 화랑단의 퇴락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성기를 벗어난 화랑과 그 집단의 약화된 세력을 시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박노준, 「5. 모죽지랑가」,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248~249쪽)으로 보거나 혹은 이와는 달리, ‘실의에서 기대로 변전하여 밝은 감정을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뿌듯한 승리감 위에서 지어진 작품일 가능성 있는 것’(신동훈, 앞의 글, 188쪽)으로 보는 등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창작 시기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죽지랑의 인품이나 풍모를 전하고자 하는 서사적 의도를 지닌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 맥락 속에서 <모죽지랑가>가 지향하는 시적 정서와 서사적 전개상의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간 봄 그리워

모든 것이 서러이 시름하는데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에 주름살이 지려 하옵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뵈기를 어떻게 만드리.

郎이여, 그리는 마음의 가는 길

다북쪽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까.<sup>17)</sup>

이 가요는 화자인 득오의 시선이 죽지랑의 모습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첫머리의 ‘간 봄’은 죽지랑의 모습에 대한 비유로, 1, 2행에서 화자는 그리움의 주체,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이의 범주를 화자 자신만이 아닌 ‘모든 것’으로 확대시키면서 그 그리움의 대상에 대한 존송의 뜻을 드높이는 가운데, 그리움의 정서를 서러움과 동반하여 표출하고 있다.

이 서러움의 정서가 전체 서사의 전개상 어느 시점의 정서인지는 이어지는 3, 4행에서 그 중요한 단서가 드러난다. 3, 4행에서 화자는 죽지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굴에 주름살이 지려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정황 곧, 얼굴에 주름살이 지려하는 것은 지금 바로 화자의 눈앞에 보이는 죽지랑의 모습이 아니다. 화자가 기억하는 죽지랑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눈에 지금까지 새겨져 온 ‘아름다움 나타내신’ 모습으로, 그것은 죽지랑이 그의 문도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마음이 담긴 모습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얼굴에 주름살이 지려 한다는 것

17) 이 현대어역은 임기중, 『우리의 옛노래』, 현암사, 1993, 36~37쪽 참조.

은 장차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화자 자신의 염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차출당해 부역을 하고 있던 자신의 請暇를 죽지랑이 익선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익선의 밭에 차출당했을 시점의 정서로서 장차 죽지랑이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전해 들었을 경우를 상정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5, 6행에서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어떻게 만날 길이 있겠느냐’는 익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화자가 죽지랑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애타는 정서를 표출한 것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운 처지에 대한 하소이다. 하지만 죽지랑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는 ‘만나뵈기를 어떻게 만드리’라는 절망 속에 표류한다. 여기에는 득오의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과 절망이라는 정서가 교차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괴로운 처지가 죽지랑과의 만남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 기대가 강한 만큼 절망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식은 죽지랑과의 만남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없는 자신의 힘든 처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절망은 그리움의 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망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다. 전체 서사의 의미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움의 정서가 곧 이 가요를 전체 서사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는 서사자가 의도하는 것이다. 화자의 절망은 죽지랑에 대한 기대, 그리움이 그만큼 절실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죽지랑은 화자에게 있어서 그 절실한 그리움이 향하는 절대적 구원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7, 8행에서 화자는 구원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끝없는 그리움, 죽지랑과의 만남을 염원한다. ‘그리는 마음의 가는 길’은 말 그대로 마음 속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죽지랑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에 마음으로만 달려가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다북쑥 우거진 마을’<sup>18)</sup>은 ‘잘 밤 있으리까’의 ‘잘 밤’과 함께 고난 내지 고독의 이미지

18) ‘蓬次叱巷’을 ‘다북叱술’의 ‘里巷’·‘街巷’의 의미가 아닌 ‘다북굴형’의 ‘蒿里(무덤)’으로 해석한 견해로는 조지훈, 앞의 글, 164쪽 참조. 이 견해에서는 이러

를 지니고 있으며, 이 ‘마을’은 화자의 정서 곧, 죽지랑을 향한 그리움 속에 절대적 절망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님 그리워 찾아가는 길이 고난 혹은 고독으로 가득찬 절망 속의 여정임을 화자는 인식하고 있다.

‘잘 밤이 있으리까’의 설의는 앞의 6행 ‘만나뵈기를 어떻게 만드리’라는 또 하나의 설의와 함께 절망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가 죽지랑을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대는 절망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죽지랑을 향한 그리움의 길은 ‘잘 밤이 없는’, 끝없는 절망의 길일뿐이다. 죽지랑을 향한 그리움이 이처럼 절대적 절망 속에 표출되지만,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 맥락 속에서 이 절망은 그리움의 정서를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가 된다.

결국 득오의 죽지랑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의 표출은 절망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역으로 이러한 그리움의 원인으로서는 그만큼 지난날 득오에게 베풀었을 죽지랑의 사려깊은 배려 혹은 인품이나 풍모를 더욱 질게 다가오게 한다. 함께 살아온 날의 죽지랑의 모습은 첫머리에 ‘간 봄’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3, 4행에서 화자가 자신의 일로 인해 주름살이 질 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그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은 바로 죽지랑이 자신의 문도를 아끼고 돌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득오의 그리움이 가요에서 죽지랑의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 초점으로 전개되면서 그에 대한 극한적인 그리움의 정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죽지랑가>는 ‘찬자의 저술의도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9)</sup> 서사적 전개상 죽지랑의 개인적인 풍모의 아름다움을 핵심으로 그 의미소통의 맥락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이 가요에 드러난 득오의 죽지랑에 대한 극한적 그리움의 정서는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제시된 죽지랑이 지닌 인간적인 풍모를 보다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 해석을 토대로 <모죽지랑가>를 죽지랑의 사후작으로 보았다.

19) 신은경, 「삼국유사의 삼입시가 연구」,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번역학회, 1998, 44쪽.

앞에서 살폈듯이, 익선의 발에 차출되어 간 득오를 찾아가 대접하려는 죽지랑의 따듯한 배려와 공과 사를 구별하는 엄격한 태도, 낭도들이 예를 갖추어 그를 따라 간 것, 사리 간진이 죽지랑의 죽지랑의 품모에 대해 아름답게 여긴 것, 사리 간진이나 진절 사지가 죽지랑 대신 나서서 익선에게 뇌물을 준 것, 조정의 화주나 대왕이 취한 조치 등 이 모든 서사 전개상의 사건이나 상황들이 모두 죽지랑의 개인적인 인품이나 품모에 집중되어 있다. 서사에 제시된 이러한 죽지랑의 모습은 곧 가요에서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로 함축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얼굴은 그리움의 정서가 향하고 있는 죽지랑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된다.

결국, <모죽지랑가>가 죽지랑의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죽지랑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아름다움을 핵심으로 하는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서사적 의미소통 맥락 속에 온전히 포섭되는 것이다. 이 가요는 서사적 전개상 전체 서사 중의 한 구성 요소로서 죽지랑의 인간적인 품모를 기리는 전체 서사에 대한 讚의 기능<sup>20)</sup>을 하고 있다.

## V. 결 론

삼국유사의 이야기 속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찬사 일연의 서사적 의도가 담겨 있으며 이 서사적 의도는 한 편의 서사 구성이나 전개 과정에 어떤 형태로건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효소왕대 죽지랑조를 대상으로 서사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적 의미보다 서사의 문

20) 讚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삼국유사 찬사에 대한 언급 참조. “찬사에 이르러 일화 형식으로 개별화되어 있던 서사가 통합되며 주제 국면이 부각된다. -<중략>- 찬사는 상황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대응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충실하다.” 최정선, 「향가와 찬시의 결합양상과 의미」, 『동방학』, 1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29쪽.

면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찬자인 일연의 서사적 의도에 주목하여, 전체 서사가 하나의 일관된 의미소통의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의미소통의 구체적 양상을 구명하고 이러한 의미소통의 맥락 속에서 향가인 <모죽지랑가>의 문학적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이야기에 반영된 찬자인 일연의 서사적 의도를 온전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서사의 역사적 배경적 상황이 아닌 서사의 문면 자체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에 주목해야 하며, 하나의 부분 서사의 의미를 갖대로 삼아 다른 부분 서사들의 의미를 추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서사의 구조 속에서 각 부분 서사들 사이에 수수되고 있는 일관된 의미소통의 맥락을 짚어낼 필요가 있다.

전체 서사는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분단되는데, 첫 번째 득오의 부역을 둘러싼 익선과 죽지랑 사이의 일과 함께 죽지랑에 대한 익선의 무례한 처신 및 익선의 그러한 처신에 대한 조정의 화주와 대왕의 응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사적 진술 부분, 두 번째 술종공이 사주 도독사로 부임시 죽지랑에서 만난 거사와의 일화와 함께 죽지랑의 출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서사적 진술 부분, 세 번째 죽지랑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설명적 진술 부분, 네 번째 득오가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지은 향가인 <모죽지랑가>이다.

효소왕대 죽지랑조 전체 서사의 전개과정상 찬자인 일연의 서사적 의도는 죽지랑이라는 한 인물의 인간적인 풍모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찬자인 일연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서사적 의미를 온전히 짚어내고자 했으며, 향가 <모죽지랑가>가 이러한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 구조 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시적 정서와 서사적 전개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서사에서 죽지랑은 득오가 익선에게 차출되어 간 것이 ‘私事’가 아닌 ‘公事’로 인한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고 득오를 위로하기 위해 떡과 술을 준비해 갔다. 이 문면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문도를 지극히 아끼는 죽지랑의 ‘重士風味’를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의도를

지닌다. 죽지랑이 득오를 만나러 가는 길에 137인의 낭도가 ‘예를 갖추어’ 따라간 것 역시 죽지랑의 이러한 ‘重土風味’를 드러내는 것으로, 익선에게 차출되어간 득오의 請暇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익선에게 예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지랑을 돕기 위해 사리 간진이 익선에게 벼 30석을 주었으나 허락하지 않았고, 진절 사지가 기마안구를 주자 허락했다. 죽지랑의 익선에 대한 請暇를 돕기 위한 사리 간진과 진절 사지의 이러한 행동은 죽지랑의 ‘중사풍미’가 대해 당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리 간진이 죽지랑의 중사풍미를 아름답게 여기고 익선의 ‘암색불통’을 비루하게 여겼다는 문면이 가리키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죽지랑의 ‘중사풍미’를 익선의 암색불통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탐욕적인 면과 보다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강조하기 위한 서사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서사적 의도를 염두에 둔다면 이 이야기를 죽지랑이나 화랑 세력의 성쇠나 영고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사건의 역사적 배경적 의미를 살핀 것으로 서사적 의미 그것은 아닌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죽지랑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인품이나 풍모에 관한 이야기로 인식된다. 익선의 태도나 행위에 대하여 조정의 화주나 대왕이 내린 조치들도 이와 같은 서사적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도 길을 지나다가 죽지랑을 대신하여 익선에게 뇌물을 주었던 사리 간진과 진절 사지의 행동이 시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죽지랑이 지닌 아름다운 인간적인 풍모가 조정이나 대왕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정의 화주가 익선의 장자를 얻어서 죽게 하고, 대왕이 익선과 같은 지역의 인사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등과 같은 이야기의 맥락 역시, 죽지랑의 아름다움 풍모를 무례하게 짓밟은 익선에 대한 강한 응징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을 벗어나는 것이다.

죽지랑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 이러한 의미맥락 속에 있다.

술종공이 고개를 넘다가 만난 거사가 죽지랑으로 환생한 것은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을 위해 고갯길을 평평하게 닦고 있었던 거사의 아름다운 면모가 죽지랑에게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사의 문면은 술종공이 거사의 면모에 대해 탄미했으며 거사가 죽자 사람을 시켜 그 무덤 앞에 돌미륵을 세웠다는 식으로, 이 거사가 죽어 환생한 죽지랑이 지닌 아름다운 인간적 풍모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며 상찬하고 있다. 이어지는 죽지랑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설명적 진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대한 총평으로서, 앞에 제시한 부분 서사들의 의미를 수렴하여 결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곧, 이 설명적 진술은 죽지랑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자신의 문도를 아끼는 중사지품을 지녔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갯길을 평평하게 닦는 아름다운 인간적 풍모를 지닌 인물이었기에 과연 성장해서도 부원수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고 4대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가 <모죽지랑가>에서 득오의 죽지랑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의 정서는 절대적 절망 속에서 표출된다. 하지만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 맥락 속에서 이 가요의 정서는 그러한 절망만큼 극한적 그리움의 원인으로서 지난날 득오에게 베풀었을 죽지랑의 사려깊은 배려 혹은 아름다운 인간적 풍모를 더욱 짙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모죽지랑가>는 찬자의 저술의도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찬자의 서사적 의도 하에 죽지랑의 개인적인 풍모의 아름다움을 핵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의미소통의 맥락 속에서, 득오의 죽지랑에 대한 극한적 그리움을 표출하는 <모죽지랑가>는 서사 전개 과정에서 제시된 죽지랑이 지닌 인간적인 풍모를 기리는 讚의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 문헌>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孝昭王代 竹旨郎

- 김동욱, 「신라가요의 불교학적 고찰」,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동욱, 「효소왕대 죽지랑 이야기와 모죽지랑가 이해의 두 바탕」, 『성대문학』 25, 성균관대 국문과, 1987.
- 김동욱, 「모죽지랑가」, 『향가문학연구』, 화경고전문학연구회편, 1993, 362~363.
- 김선기, 「다가마로노래」, 『현대문학』 146, 현대문학사, 1967.2.
- 김승찬, 「모죽지랑가 신고찰」, 『국어국문학』 13·14, 부산대 국문과, 1977.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 김종우, 「모죽지랑가의 성격고」, 『한국문학논총』 1, 한국문학회, 1978.
-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 출판국, 1980.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 박노준, 「5. 모죽지랑가」,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0, 서울대 국문과, 2005.
- 서재극, 「모죽지랑가 연구」, 『신라시대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1974.
- 신동훈, 「모죽지랑가와 죽지랑 이야기의 재해석」, 『관악어문론집』 15, 서울대 국문과, 1990.
- 신수식, 「모죽지랑가의 창작연대 연구」,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961.
- 신은경, 「삼국유사의 삼입시가 연구」,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 양희철, 「모죽지랑가의 창작시기 일별」,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 윤영옥, 「모죽지랑가 재고」, 『영남어문학』 6, 1979.
- 이도흠, 「모죽지랑가의 창작배경과 수용의미」,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 이용재, 『향가에 나타난 서민의식』, 백문사, 1990.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임기중, 『우리의 옛노래』, 현암사, 1993.

정연찬, 「향가해독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제2판, 지식산업사, 1989.

조지훈, 「신라가요연구론고」, 『민족문화연구』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최성호, 『신라가요연구』, 문현각, 1984.

최정선, 「향가와 찬시의 결합양상과 의미」, 『동방학』, 1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최철, 『향가의 본질과 서사적 상상력』, 새문사, 1983.

홍기문, 「향가의 특수한 형식」, 『향가해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민음사, 1997.

## Abstract

*The Communication of Narrative Meaning of Hyosowangdae-Jukjirangjo and  
<Mojukjirangga> / Lee, seung-nam*

The story of Hyosowangdae-Jukjirang mainly describes Jukjirang's personality not the rise and fall of Jukjirang or Hwarang.

This story does not depict what he has been through as a shameful thing rather it focuses on Jukjirang's behavior and attitude specially concerning his member.

The story compares Jukjirang to Ikseon, a rude bribee. This make Jukjirang more attractive. Also the behavior of Geosa who met Sulfonggong infers the good personality of Jukjirang, who is the reincarnation of Geosa.

The story describes that the pesonality of Jukjirang became the base of the unity of three countries and the stabilization of country as a prime minister for 4 king's period. In conclusion, this story forms the context of meaning communication mainly for the good personality of Jukjirang within the intension of storyteller.

The unlimited longing for Jukjirang in Mojukjirangga emphasis the personality of him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escription.

Key words: Hyosowangdae-Jukjirang(孝昭王代 竹旨郎), <Mojukjirangga(慕竹旨郎歌)>, Samkukyusa(三國遺事), Hyangga(鄉歌), the structure of a story, The Communication of Narrative Meaning, descriptive intension, good personality, poetic feeling.